

지역 소식통

김제 귀농귀촌협의회 상반기 운영위원 워크숍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육성하는 사단법인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24일 경북 영덕군 대계축제장에서 김제시와 영덕군 귀농귀촌 협의회의 자매결연 교류방문 및 양기관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귀농귀촌협의회 상반기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영덕군 대계축제장에 귀농귀촌 마켓을 운영하고 내방객을 상담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들과 민감류 등 김제시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홍보하였으며, 민감류 시음회와 공기부 라떼 만들기 등 김제시 귀농귀촌인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 상반기 전기차 80대 지원

완주군이 올해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총 80대를 지원한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18억6,2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101대(승용 51, 화물 50)를 상·하반기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 14억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0대(승용 40, 화물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승용은 최대 1,380만 원, 화물은 최대 1,9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ca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10일까지 접수마감후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문화도시 성과평가 '최우수'

문체부 발표...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 '호평'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달려온 완주군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도시에 선정되면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입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14조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에서 완주군은 2년 연속 최우수도시에 선정되면서 기본 사업비를 비롯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3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1~3차 범정부문화도시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역량, 협력역량 등 공통지표 4개 영역 13개의 공통지표와 비전과 전략, 거버넌스 구축, 문화진흥, 지역발전 등 5개 영역 13개 자율지표로 심의와 현장평가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 지원사업의 심의와 선정주체가 되는 '완주문화배심원' 제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시민속의단-문화현장주민기획단 등 통합형 거버넌스 운영과 문화저지 실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도시 최초로 도농복합형

문화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면서 극찬을 받았다.

완주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기존 문화사업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가진 지리적·시기적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구축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리적 제약 및 도농복합형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로당 마을회관과 공간을 연계한 '별별마을회관' 사업과 '농한기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다.

문화활동의 지리적 제약극복을 위해 2022년 한해 완주문화도시가 조성한 '별별마을회관'은 28곳, '마을학교'는 15곳, 민간공간 공유를 통한 마을과 골목 문화 기반을 구축한 장소는 20곳에 이른다.

완주군은 시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농한기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그 결과 2022년 18개 사업에 27개 마을이 참여해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가 가장 높으나 문화활동지원이 전무했던 '농한기'를 마을문화활동이 가장 활성화되는 '문번기'로 바꿔내는 혁신



지난 한해 완주문화도시가 조성한 '별별마을회관'.

을 이뤘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 제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도, 지속 정주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도시와 농촌이 만나 문화로 완성되는 도시, 문화로 정주하는 도시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년 연속 최우수도시 선정은 모두 군민들의 힘과 뜻,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도시로 완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

다"고 말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문화도시 완주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건 모두 함께 해주시는 군민들 덕분"이라며 "올 한해도 공동체문화도시 완주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범정부문화도시의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완주=이중복기자

'기업혁신센터 구축, 중기 경쟁력 증강'

김재천 완주군의원, 5분 발언서

완주군의원 김재천 의원은 지난 24일 완주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업혁신센터 구축과 관련해 5분 발언을 가졌다.

김재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역량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혁신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완주 산업단지'를 통해 완주와 대한민국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나아가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완주군은 수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며 "320만 평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세계 최초 수소트럭과 수소버스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작년 말 착공되고, 신재생에너지 평가체계인 ESS인정성평가센터 조성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두 거대 정당이



공통으로 완주지역 수소산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미래핵심 산업인 만큼 타 지역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의 협상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래산단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단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업혁신센터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기업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완주 산단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와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완주 산단 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건설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호국보훈수당 인상 보훈 예우 강화해야'

심부건 완주군의원, 5분 발언서

완주군의원 심부건 의원은 지난 24일 완주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호국보수당 인상으로 보훈 예우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심부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 할 것을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일과 같은 호국기념일에만 애국을 부르짖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 지급, 교육 및 의료, 대부지원 등 예우보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지원수준과 그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고, 이마저도 구색을 맞



추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 보훈지원책인 호국보훈수당의 경우 완주군은 여전히 월 8천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인접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의 호국보훈수당은 도내 평균인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8개 군 단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2007년 조례를 제정해 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금껏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불과 5만원 인상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심부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8천원의 수당을 인근 지역 수준까지 인상에 달라고 요청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인구성장 정책 타 지자체 롤모델로

김제시, 행안부 주관 워크숍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사례 발표

인구 감수성 교육도 실시 문제 해결 인식 변화 이끌어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워크숍에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8개 지자체와 18개 관심지역의 시·도 연구원 및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인구감소 대응 업무담당자 워크숍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제도 및 공모계획 안내, 특강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되었고 김제시 김숙영 인구정책팀장은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김제, 시민 곁에 든든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차별화된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함께 인구성장 초석 마련의 밑거름이 되는 정주여건 개선·청년인구유입·생활인구확대 등 기반 구축을 포함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같은 날 오전에는 신규 실무수습 직원(47명)을 대상으로 지역소멸위기와 직결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실시된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인구정책 우수 사례·추진 성과 등을 포함한 인식 교육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

한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김제시는 지난 9일 입상군의회 의원 정책연구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방문하는 등 인구정책 롤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